

법조안팎의 소통의 매체

50이면 '지천명'이고, 60이면 '이순'이라 합니다. 50세가 되면 하늘의 뜻을 알게 되고, 60세가 되면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월간 『考試界』도 올해로 창간 55주년을 맞게 되었으니 사람으로 치면 지혜를 얻어 하늘의 뜻을 알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창간 5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월간 『考試界』를 한 두 번 이상은 접해보고, 도움도 받았을 것입니다. 합격 여부가 불투명하여 불안해하던 젊은 수험생 시절 월간 『考試界』에 실린 선배들의 합격기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법 이론을 상세하게 풀어준 논문에 가슴 벅찼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인터넷 클릭 한 번으로 최신판례에서부터 수험가의 이모저모까지 모든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하더라도 수험생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마음의 위안을 찾을 수 있는 창구는 월간 『考試界』가 거의 유일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월간 『考試界』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55년 전의 법조계와 2011년 오늘의 법조계는 본질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법조인의 숫자가 비교도 안될 만큼 늘었습니다. 한 해에 고작 10여명 정도가 법조인으로 배출되고 새로 개업하는 변호사 숫자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최소한 2,500명의 변호사 자격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조인 선발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사법시험을 통해 연수원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고서야 법조인이 되던 것에 비해 내년부터는 로스쿨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변호사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 영 무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성 법조인의 비율도 해마다 늘어 이제 거의 동등비율로 여성들이 예비법조인이 되고 있고, 변호사로서의 여성 법조인 뿐 아니라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법조인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송무업무에만 치중하던 법조시장은 이제는 각종 계약서 검토에서부터 국제거래관련 자문 업무에 이르기까지 기업활동과 국민들의 일상생활 곳곳에 파고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법조시장이 변화된 만큼 월간 『考試界』도 그 역할과 법조인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달라졌다고 할 것입니다. 기존의 월간 『考試界』가 정보가 부족한 수험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연이은 실패와 불안한 미래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하면 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마음의 안식을 주는 역할에 치중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월간 『考試界』는 달라진 수험 환경을 분석하고 달라진 법조인들의 역할을 정의하고 새로이 그 길을 펼치는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의 중요한 문제나 큰 변화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시험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예비법조인을 위한 잡지가 아니라 달라진 환경에서 올바른 법조인 상을 제시하고 일반인과 법조인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도 하여 예비법조인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는 잡지로 거듭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월간 『考試界』는 앞으로도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법조인들을 위한 필독서로 계속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월간 『考試界』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감사합니다.